

GS칼텍스, 고도화설비 확대 박차

여수 No.3 중질유분해 준공에 No.4 착공 ... 프로필렌 45만톤 생산

GS칼텍스가 고도화설비 도입을 가속화함으로써 석유화학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GS칼텍스는 5월12일 여수공장에서 하루 6만배럴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제3 중질유분해시설을 준공했다.

중질유분해시설은 벙커C유 등의 중질유보다 더 무거운 초중질유에 수소를 첨가해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고품질의 경질 석유제품을 만드는 친환경 설비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됐다.

GS칼텍스는 2조2000억원을 들여 2008년 10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부지면적 61만5000㎡에 감압잔사유 수첨 분해시설(VRHCR: Vacuum Residue Hydrocracker)을 비롯해 황회수시설, 수소제조시설, 저장 및 출하시설, 지원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중질유를 친환경 경질유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질유분해시설은 녹색성장기술”이라며 “생산제품을 수출해 국가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S칼텍스는 2013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제4 중질유분해시설의 기공식도 가졌다.

제4 중질유분해시설은 감압 경유 유동상촉매분해시설(VGO FCC: Vacuum Gas Oil Fluidized Catalytic Cracking Unit)과 휘발유 탈황시설(Gasoline HDS), 친환경 고급휘발유 제조시설인 알킬레이션 생산공정으로 구성된다.

하루 5만3000배럴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제4 중질유분해시설이 완공되면 GS칼텍스는 생산능력이 하루 26만 8000배럴로 확대돼 국내 최대의 고도화능력과 고도화비율(35.3%)을 갖추게 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프로필렌(Propylene) 25만톤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어 생산능력이 총 45만톤으로 확대돼 석유화학 사업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공식 및 기공식에는 허동수 회장 및 김황식 국무총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12>